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가중될 것... 개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배”

김의철 사장, 대국민 호소문 통해 국민께 사과하고 불편 최소화 의지 밝혀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12일, 김의철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의철 사장은 먼저 공영방송 존재 가치를 국민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한 뒤, 국민께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개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면,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은 한국전력과 협의의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어제(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개정안은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실의 온라인 국민제안을 시작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 지 약 6달 만입니다.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개정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저는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KBS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들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저희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내외부에서 지적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35년간 바뀌지 않은 방송법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간 KBS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과 공적책무, 서비스의 범위, 그에 걸맞은 자원조달 방식에 대한 제도변화를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법을 방치한 채 1994년 이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어떠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 없이, 부정확한 온라인 토론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초고속으로 폐기했습니다.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전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징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즉,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신료의 결합고지가 정당하고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이어서 수신료의 징수 방식과 절차 모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사법부가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7월 12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KBS는 국민 여러분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도 호소합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자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KBS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공정성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경영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사회적 이익을 높이는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2.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의철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위헌적 요인은?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위헌적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침해

-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는 청구인이 법률상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함.

법률유보원칙 위반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적 근거 없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됨.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수신료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공개적 토론 및 상충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어야 함.
- 수신료 징수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수신료 징수업무에 대해서 수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주어진 수탁자의 재량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폭 축소함.

과잉금지원칙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적 토론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목적의 정당성 위반 : 어떠한 헌법상 정당한 목적도 존재하지 않음.

-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선택권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참고자료 및 입장문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신료 납부거부 유도' 및 '재정적 타격을 통한 청구인에 대한 압박'임을 자인함.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대해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수차례 제출해왔음.
- 해당 개정령은 입법자들이 설계한 공영방송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되었음.

방법의 적절성 위반 : 적절치 않은 방법을 택함.

-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도출하는 방법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잘못된 방법을 택함.

침해의 최소성 위반 :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함.

- 방송법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수신료 통합고지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임.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인해 공영방송제도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불이익의 정도를 완화할 수단을 고려해야 하나, 입법절차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음.

법익 균형성 위반 : 개정으로 인한 공익이 불분명하거나 미약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이 막대함.

-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인해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에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 또는 공익은 사실상 거의 없음.
- 수신료 분리징수가 될 경우 수신료 수입 비중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다양한 공적 책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신뢰보호원칙 위반

- 수신료 통합징수제도는 1994년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어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고, KBS는 이러한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개적 토론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한 것은 KBS는 물론 이해관계인 등의 신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KBS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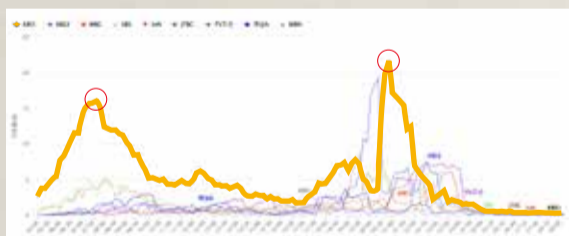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 입법예고기간 단축(1/4로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만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
-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에서 2인 출석으로 중요 안건을 처리하고,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이프

재난이 오면 왜 KBS를 보는가?

김민철 재난미디어센터장



위 그래프는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던 지난해 9월 6일의 시청률입니다. 오전 7시 40분쯤 전국 시청률이 16%를 찍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뉴스도 보시는 바와 같이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상륙 지점과 근접한 경남 창원 지역의 시청률은 오전 7시 50분쯤 무려 29.1%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아래 그래프)



이처럼 느닷없이 재난이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닥쳐오거나, 닥쳐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 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합니다. 눈앞에 드러난 시청률표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을 가장 채워줄 수 있는 곳은 KBS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해서 이런 시청률표를 볼 때면, 저는 가슴이 뛰며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태풍 힌남노 당시 KBS 재난방송은 어떤 정보를 전했기에 저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상청 예보관 실시간 연결과 라이브 CCTV를 통한 실시간 현장 연결, 주민 대피 정보의 가장 신속한 전달, 그리고 태풍 길목의 각 층급 스튜디오를 거점으로 한 거점 방송 등과 같은 '값어치 있는 입체적 상세 정보의 적시 전달'에 주력했습니다.

요즘 누가 TV로 정보를 얻나요? 그도 맞는 말씀이죠. 흔히들 내 손의 스마트폰을 켜고 포털사이트 뉴스나 SNS, 재난문자 등을 보며 손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1차 정보를 일단 습득한 이후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현장의 영상과 심층적, 입체적 '정리된 2차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는 수요도 매우 큼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역할은 아직도 TV가 효과적이며 KBS가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 실제로 KBS가 그 기대를 상당히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역시 저 시청률표가 증명해준 셈입니다.

스마트폰과 PC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 습득을 위한 최상의 도구는 아닐 겁니다. 저부터가 일터로 나가기 전인 새벽, 귀가 시간 이후와 심야엔 눈이 아파 스마트폰의 작은 글자와 영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더하겠죠. 또 대한민국의 도로엔 종일 차가 있는데 운전자들에게 라디오를 통한 정보 전달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물론 TV와 라디오의 콘텐츠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을 잘하는 일도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TV건, 라디오건, 모바일이건, 디지털이건, 재난이 닥쳐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KBS를 찾고, KBS를 통해 정보를 얻게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재난은 자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이 천천히 올 경우엔 예방과 대비를 할 시간이 있지만, 지진처럼 돌발적이고 기습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갖가지 유형의 재난이 엄습해올 때, 피해를 줄이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데 보탬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KBS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들이 '국민의 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에 거는 기대이고, 수신료를 내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게임 코드레드〉, 서바이벌과 공영방송 KBS의 절묘한 결합



정덕현
문화평론가

공영방송 KBS와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어딘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종종 강조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와 대결은 자칫 자극적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서다. 하지만 KBS 〈생존게임 코드레드〉는 어딘가 다르다. 분명 서바이벌 형식이 갖는 경쟁과 대결이 벌어지고 때론 위험해 보이는 상황들이 자극적으로 펼쳐지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나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와 어울린다는 느낌을 준다.

이 절묘한 결합이 가능해지는 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생존 상황을 공영방송의 방식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코드레드’ 상황으로 전개된 납치 상황에서 탈출하는 서바이벌은 시작부터 다짜고짜 괴한들이 나타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 어딘가로 데려가는 살풍경한 장면을 보여줬다. 폐건물에 납치된 6인은 박군, 조준호, 곽범이 한 팀이 되고, 쟁재, 모태범, 문수인이 한 팀이 되어 벌이는 팀전으로 전개됐다. 3 대 3으로 벌어지는 팀 서바이벌 미션만큼, 팀 대결의 경쟁이 강조된 면도 있었다. 하지만 팀원들끼리의 단합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출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분명히 보인 점은 앞으로 전개될 〈생존게임 코드레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엔 충분했다.

박군은 남다른 경험과 두뇌로 팀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고, 조준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침착성을 보여줬으며, 곽범은 개그 본능으로 웃음을 주려 하면서도 해병대 출신으로 의외의 기량을 선보이는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쟁재는 묶은 줄을 풀기 위해 의자를 통째로 부숩버리는 파괴본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모태범은 케이블 타이 정도는 근력으로 끊어버리는 괴력을 보여줬다. 문수인은 침착한 대응과 동시에 큰 키를 백분 활용하는 활약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흥미진진한 서바이벌 미션 과정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이자 취지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빠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창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면 열어 놓는 게 유리하고 차 문을

여는 것도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더 용이하다는 정보라든가, 차가 전복됐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목 부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보 같은 것이 그렇다. 두 번째 미션으로 치러진 화재 현장이나 지진 현장에서의 생존자 구출 같은 경우에도 탄산음료나 채소 등을 이용해 불을 끄는 게 용이하다는 정보나, 청바지 같은 천을 이용해 들것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 노하우들이 소개됐다. 마치 하나의 서바이벌 게임처럼 출연자들이 생존 환경에서 벌이는 미션이 등장하지만, 그 광경을 스튜디오에서 관찰하며 생존 노하우를 전해주는 균형 잡힌 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생존 정보를 알려주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어 그릴스의 〈인간과 자연의 대결〉이 일찍이 시도한 바 있다. 사막이나 혹은, 정글 등에서의 생존법을 베어 그릴스가 현장에서 알려주는 이 프로그램은 완전한 실제 상황은 아니다. 대신 생존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걸 시연하는 ‘생존 교육’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재난 상황을 만들어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존게임 코드레드〉 역시 〈인간과 자연의 대결〉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생존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게임과 같은 재미를 크게 더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해내면서도 현재의 트렌드에 발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 〈생존게임 코드레드〉가 그 절묘한 결합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지역 시청자위원이 말한다

KBS 부산방송총국

중요한 지역 현황의 해법을 제시해 주는 KBS 부산방송총국

“경제는 문화에 종속되어야 한다. 문화 재단에서 기업들을 운영해 수익을 그 지역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 써야 한다. 즉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이다” 산업 폐기물과 심각한 자연 훼손으로 버려진 섬 나오시마를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시킨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완성한 베네세 홀딩스의 후쿠다케 소이치로의 말이다.

부산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불린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나 예술가들의 공연이나 전시에는 표가 모자랄 정도로 관람객이 몰려든다. 하지만 지역 향토 예술인들의 공연이나 작품 전시에는 무관심하다면 문화도시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을 것인데, KBS 부산방송총국에서는 향토 예술인들의 공연, 전시, 발표회 등을 세세히 보도해 지역 작가들의 발표 기회를 늘리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기에 문화와 예술의 도시 부산을 가꾸고, 부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KBS 부산방송총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KBS 부산방송총국에서는 〈뉴스7〉, 〈K-토크 부산〉, 〈대담한 사람들〉 등 인적, 물적 어려움에도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들을 방영하고 있다. 5월 23일부터는 지역국 최초의 환경 정규 프로그램인 〈환경을 푸는 언박싱〉도 방



송되고 있다. 부산 시민의 절박한 문제인 낙동강 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 변화 문제 등도 함께 다루는 찾아보는 솔루션 프로그램인데 매우 의미 있는 방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 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한다. 각계에서 추천된 13명의 부산 K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제안이나 우리 부산에 특화된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을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히 토의하며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



박종호
부산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 / 부산벤티빙의 병원장

KBS 부산방송총국에서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부산이 수도권 일극주의에 매몰되어 점점 소멸돼가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거나 문화도시 부산, 글로벌 대학 문제를 심층 있게 보도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친환경적 북항 재개발 등 제2의 도약을 통한 부산의 르네상스를 위해 시, 정치인, 시민사회 등 전 구성원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KBS는 국가대표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코로나19 때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KBS 부산방송총국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KBS 본사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고 인력과 예산이 편중돼, 지역 방송사는 열악한 인력과 예산으로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도 건의하였듯이 최소한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KBS 부산방송총국이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위상을 높이고,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 **도우미** •

재미+감동+정보+공익 4묶음

**택배 배송료
한달 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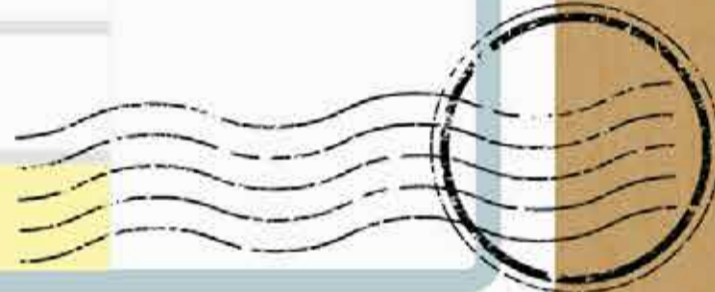


1. 수신료는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입니다.
2. 전기요금 통합징수로 비용을 줄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3.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돼도 납부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4. 분리징수는 혼란을 초래하고 신의의 납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공정한 방송, 효율적 운영으로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발신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수신자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배송메시지



1 건강한 웃음 ☀

여러분의 수신료로
<전국 노래자랑>, <1박 2일>, <가요무대>, <대한민국 여객선 나혼다>, <열린음악회>, 해외 <유적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4 모두의 공익 ☺

KBS 수신료는 재난방송 주관, 장애인·소외계층 서비스,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디카이브 개방, 난시청 해소, 한국어 연구 등 꼭 필요한 일에 쓰입니다.



3 올바른 정보 ★

수신료에 담긴 가치, 더욱 공정한 가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 거듭 되새기며 노력하겠습니다.



2 따스한 감동 ♥

건강한 웃음, 따스한 감동, 공익의 가치를 키우는 일, 수신료로 가꾸어 왔습니다. 공영방송 50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 시청자의 수신료로 만들겠습니다.”

